“지식은 함께 읽고 깨우치는 것”

신영복 교수의 고전·인문학 강의

신영복 교수는 저서 ‘담론’을 통해 ‘맹자’가 조선 건국에 일정하게 침투해 있다고 말한다. 사진은 드라마 ‘정도전’의 등장인물들.

담론

신영복 지음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말하기 어려워한다.”

‘맹자’ 중 일부다. 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작은 것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실천하는 지성인 신영복(74)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의 글이 꼭 이러하다. 앎을 과하게 설명하거나 꾸미지도 않고, 삶의 일화를 곁들인 글의 깊이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넉넉하다.

신 교수의 저서 ‘담론’은 동양고전 ‘시경’ ‘주역’ ‘논어’ ‘맹자’ ‘한비자’를 바탕으로 현대사회를 읽어낸다.

저자는 스승과 제자, 공부의 정의부터 규정한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자는 스승이 될 수 없고, 스승이 될 수 없는 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 교사와 학생이란 관계가 비대칭적 관계가 아니며, 가르치는 것은 ‘깨우침’이다.

책이 귀했던 어린 시절 저자는 친구들과 함께 삼국지를 읽었던 일화를 들려준다.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려 잠시 자리를 비운 저자를 위해 친구들은 책을 읽지 않고 있었다. 저자는 이를 “함께는 지혜다. 함께는 뜨거운 공감이다”고 표현한다. 혼자서 깨우치는 게 아니라 함께 읽고 깨우치는 게 지식이다는 것이다.

이는 소의 무게를 맞히는 대회를 열었던 영국의 일화에서도 명확해진다. 대회에 참여한 800여명 중 누구도 소 한 마리의 무게를 정확히 맞히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들이 적어낸 무게의 평균을 내본 결과 소의 실제 무게와 거의 똑같았다. 군중을 한 사람으로 보면 완벽한 판단력이 나오며 이는 ‘집단의 지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또 공부는 ‘머리, 가슴, 발’로 한다고 강조한다. 낡은 생각과 오래된 인식 틀을 바꾸는 것 즉, 공부의 시작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과정이다. 또한 발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삶의 현장이며 실천적 측면이 강하다.

강의 첫 시간에 시를 다루는 이유에 대해 저자는 ‘인식 틀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답한다.

시는 사물의 변화를 읽으려 할 경우 대단히 뛰어난 관점을 시사한다. ‘기승전결’이라는 시의 구조가 그렇다. 시상을 일으키고(기), 일정하게 그 상황을 지속하고(승), 양적 축적의 일정한 단계의 변화과정(전)을 겪고, 최종적 완성형으로 마무리(결)한다.

유연한 시적 사유는 비단 세계 인식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대단히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 언어는 왜소하다. 그 왜소함을 뛰어넘는 다양한 방식을 승인하는 것이 ‘시적 레토릭’이다.

조선 건국에 ‘맹자’가 일정하게 침투해 있다는 것도 신선한 주장이다.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은 부친의 시묘살이 과정에 정몽주가 보내 준 ‘맹자’를 읽었다. 맹자의 ‘민본사상’이 조선 정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돌베개·1만8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사시대 ‘소리’부터 ‘팝음악’까지 8개 범주로 묶은 흥미진진 스토리

영국 BBC 화제의 다큐 책으로 나와

다시 쓰는 음악 이야기

하워드 구달 지음

영국 BBC에서 방영돼 화제를 모았던 음악 관련 다큐멘터리 ‘Story of Music’(6부작)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하워드 구달의 다시 쓰는 음악 이야기’는 평범한 음악 애호가들도 알기 쉽게 음악의 역사를 소개한 책이다. “나는 지구를 방문한 화성인에게 우리의 음악세계를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했다”고 밝힌 저자는 기원 전 선사시대 음악부터 고전 음악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즐겨 듣는 팝 음악까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풀어낸다.

하워드 구달은 에미상, 브릿상, 영국아카데미상 등을 수상한 유명 작곡가이자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로 음악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다룬 ‘빅뱅스’(2000)를 펴낸 바 있다.

저자는 시대순으로 발생한 ‘소리의 혁신’을 주제로 생생한 음악 이야기를 들려준다. ‘발견의 시대’로 명명한 기원전 4만년 전부터 기원후 1450년을 시작으로 참회의 시대, 발명의 시대, 우아함과 감성의 시대, 비극의 시대, 반항의 시대 등을 거쳐 대중의 시대(1918~2012)까지 모두 8개 카테고리로 나눠 들려주는 스토리가 흥미롭다.

새로운 길을 앞장 서 개척하고 실험한 선구자였다고 평가한 리스트를 비롯, 다양한 음악가들의 이야기와 고전 음악의 종말은 가당치 않다며 고전음악이 뮤지컬, 영화음악, 비틀즈 등 주류 대중음악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음을 들려주는 대목 등이 눈길을 끈다.

책 말미에는 베토벤의 ‘합창’부터 비틀즈, 폴 사이먼의 노래까지 음악 추천 목록을 함께 실었다.

〈뮤진트리·2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생물학 명강 3=우리나라 최고의 생물학자 16명이 생물학계의 핵심 주제를 소개하는 교양과학책. 저자들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가 주관하는 경암바이오유스캠프 강연을 글로 다시 풀어썼으며,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생물학적 연구 성과를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최대한 쉽고 생생한 언어로 소개한다. 신인철 한양대 생명과학과 교수의 위트 넘치는 카툰은 글의 내용을 즐기고 음미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해나무·1만5000원〉

▲낡은 것들의 힘=작가, 뮤지션, 화가, 디자이너 등 67명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각자 자신의 추억이 새겨진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등 낡은 의류들을 소개하며 그 속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들인 동시에 그들만의 예술적 취향이나 가치관이 드러나는 에피소드들이어서 흥미를 끈다. 천천히 과거를 음미하면서 자신과 가족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 〈한스미디어·1만3000원〉

▲내 아이의 양심=20여년 역사의 비영리조직 세계윤리연구소 소장이자 미국 지식인층으로부터 존경받는 러시워스 키더 박사가 집필한 책으로,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와 참가자들, 인터뷰어들과의 대화를 통해 빚어낸 결과물이다.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온 어린 아들, 남자친구와 밤늦게까지 함께 있으려는 10대 딸아이 등 어느 집에서나 흔히 겪는, 하지만 답을 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등장하므로 실제 양육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조언을 얻을 수 있다. 〈RHK·1만3000원〉

▲지도 밖으로 꺼낸 한국사=서양 지리학자의 눈으로 본 지도 속 한반도의 역사. 지도라는 특별한 주제를 통해 한국 역사의 흐름을 살피는 책은 과거 한국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도에 반영되었는지를 다양한 도판을 활용해 멋지게 보여 준다. 서양의 지리학자가 지도라는 중요한 소재를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살폈다는 점은, 독자들이 우리 역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해문집·1만3900원〉

▲금융이슈로 읽는 글로벌 경제=1973년 브레턴우즈체제 붕괴 이후 수십 년간 국제금융계의 주요 현안이 되어온 과제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살펴봄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넓은 안목으로 국제금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을 중심으로 지난 수년간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해온 국제금융의 주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의 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변화를 내다보는 데 든든한 발판을 제공한다. 〈삼성경제연구소·2만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전 세계 언론이 가장 주목하고, 정치인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 그는 세계 어느 지도자들보다 검소하며 국민과 가깝고 정직한 대통령으로 유명하다. 2009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인기를 받으며 2015년 3월, 취임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65%)로 임기를 마쳤다. 그가 들려주는 인생의 길, 정치의 미래, 참된 삶의 가치를 담았다.

〈21세기북스·1만6000원〉

어린이 책

▲과학 만화로 만나는 세상 1~3=초등 과학 교과서의 핵심 내용에 타 교과 지식을 녹여 STEAM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구성한 과학 학습 만화다. 1권 우주, 2권 지구, 3권 빛과 소리까지 과학의 여러 가지 개념과 원리가 이야기 속에 골고루 잘 녹아 있어서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창비교육·각 권 1만원〉

▲기다릴까? 말까?=가치를 키워 주는 동화 시리즈. 다섯 편의 이야기로 구성된 본편과 세 편의 이야기로 구성된 특별책으로 출간됐다. 본편은 동물 주인공의 더 많은 생생한 이야기와 재미난 독후 활동 부록이 포함돼 있다. 특별책은 본판에서 동물 주인공이 못다 한 세 가지 이야기를 담았다. 〈도서출판 씨즐북스·9800원〉

▲공룡 전쟁 : 최고의 공룡을 찾아라!=공룡이 살았던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서부터 쥐라기, 백악기까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공룡들의 먹고살기 위한, 혹은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보여 준다. 육식 공룡의 특징과 전투 능력, 온순해 보이는 초식 공룡의 비밀 병기까지 하나하나 비교해 가며 살뜰하게 답한다. 〈봄나무·1만4000원〉

▲월화수목 그리고 돈요일=학교 폭력으로 상처 받은 마음을 진정한 우정을 통해 서서히 치유해 가는 과정을 그린 창작 동화. 살아남기 위해 매주 돈을 모아 동네 형에게 상납하는 동현이와 용서 받지 못한 채 영혼이 되어 떠도는 학교 일진 영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주니어김영사·9500원〉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 ·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흑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적합)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오피스텔부지적합)
- 서구 마륵동 대지 701㎡ 매10억
- 서구 세하동 생산녹지 답 2,400㎡ 매 5.7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2,600㎡ 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해남바다 접한 펜션주택지
▶주소 :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02-1
▶면적 : 12,102평방미터 (500평분할가능)
▶매가 : 평당 15만원
▶지역 : 계획관리지역
바다와 갯벌 체험하고 백사장과 송림숲이 좋은 환상땅
010-5267-7225

해남 귀농 최고의 펜션
▶연소득 : 5천만원 (장부확인가능)
▶장소 : 해남읍서 대흥사 가는길목
▶면적 : 1838평방미터 (대+전)
▶건평 : 주택4동+켐핑카
▶매가 : 4억 5천 (절충가능)
010-5267-7225

제주도 환상의 땅
투자 최고의 돈버는 땅
▶주소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면적 : 3071평방미터 (계획관리)
▶매가 : 9천만원
▶주소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면적 : 4509평방미터
▶매가 : 6억5천만원
010-4870-4800
제주땅 삽니다